

The Gospel of Mark

Sermon 72 – Sermon Notes

Title: “Our King on a cross”

Scripture: Mark 15:21-32

Date preached: March 3rd 2024

Scripture: Mark 15:21-32

21 Then they compelled a certain man, Simon a Cyrenian,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as he was coming out of the country and passing by, to bear His cross. 22 And they brought Him to the place Golgotha, which is translated, Place of a Skull. 23 Then they gave Him wine mingled with myrrh to drink, but He did not take it. 24 And when they crucified Him, they divided His garments, casting lots for them to determine what every man should take.

25 Now it was the third hour, and they crucified Him. 26 And the inscription of His accusation was written above:

THE KING OF THE JEWS.

27 With Him they also crucified two robbers, one on His right and the other on His left. 28 So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ys,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29 And those who passed by blasphemed Him, wagging their heads and saying, “Aha! You wh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three days, 30 save Yourself, and come down from the cross!”

31 Likewise the chief priests also, mocking among themselves with the scribes, said, “He saved others; Himself He cannot save. 32 Let the Christ, the King of Israel, descend now from the cross, that we may see and believe.”

Even those who were crucified with Him reviled Him.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를 보고 강제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해골터’로 알려진 골고다로 가서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다. 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졌다.

25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는 오전 9 시경이었다. 26 예수님의 죄명이 적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27 그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28.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29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야! 성전을 헐고 3 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30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31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32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Review

Before we turn to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review some of the things we spoke about last time.

The events of that fateful Thursday evening and Friday morning of Passion week transpired quickly.

In just a few short hours picture what Jesus endured. He faced six trials. Three of these were religious, held before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ese were followed by three civil trials, held before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and Herod Antipas. During these trials the Lord Jesus was mocked, ridiculed and physically abused. Interestingly the two courts came to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Christ's guilt. The Jewish courts found Him guilty. His offence was blasphemy. Jesus, a mere man in their eyes claimed to be God. The civil courts found Him innocent. As Pilate famously said, he could find no fault in Him (John 19:4). However as we know it was God's plan that would prevail. Jesus would die upon the cross.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in these days of uncertainty and unease that no human plan or intent will ever succeed in thwarting the will of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Last time we looked at what occurred following the 6th and final trial held before Pontius Pilate. As you will remember Pilate gave the baying mob of Jews a choice about who they wished to be pardoned. They could choose either innocent Jesus, or a convicted criminal in Barabbas. The mob, encouraged by the Jewish elders screamed for Jesus to be crucified. Pilate who proved himself to be a weak and indecisive leader gave into their demands and condemned Jesus to death. Jesus was then publicly flogged or scourged before being led into the Praetorium by the Roman soldiers.

Here following this most brutal and traumatic treatment Jesus was mocked and ridiculed by members of the Roman garrison. They dressed Him so that he resembled a king or prince. But not of course in the real attire that would be worn by such a person. Rather, they elected to use shoddy duplicates of the real thing. An old centurion's robe instead of a regal gown, a reed or stick in place of a golden sceptre, and a crown of sharp twisted thorns instead of a crown of glistening gold. Once the Lord was "dressed as a king" they mocked and abused Him. Spitting on Him and hitting Him on the head with a stick. They added to the abuse by pretending to worship Him. Falling to their knees as they acted as though they were paying homage to a king.

All of this our Lord and saviour endured in silence. He did not attempt to fight back or resist either in word or deed. He submitted to this treatment knowing it to be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at through all this horror God would ultimately receive the glory.

Today we will look at the actual crucifixion.

오늘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고난 주간의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의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짧은 몇 시간 동안에 예수께서 인내하셔야 했던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여섯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 세 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열렸던 종교적 재판이었고, 이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세 차례의 민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 중에 주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과 신체적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법정은 그리스도의 죄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유대인 법정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민사 법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요한복음 19:4).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처럼 불확실성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의도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좌절시키지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번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열린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고함을 지르는 유대인 폭도들에게 누구를 사면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예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유죄판결을 받은 죄수 바라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부추김을 받은 폭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인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총독정으로 끌려가기 전에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잔인하고 충격적인 매질을 당한 후에 예수께서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왕 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이 입을 실제 옷차림은 아닙니다. 그들은 조잡한 가짜를 사용했습니다. 왕의 예복 대신에 낡은 백부장의 예복을, 금홀 대신에 갈대나 막대기를, 빛나는 금관 대신 날카롭고 꼬인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처럼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조롱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분에게 침을 뱉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는 척함으로써 학대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마치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침묵 가운데 견디셨습니다. 그는 말이나 행동으로 반격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이 모든 공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알고 이러한 대우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은 실제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1 Then they compelled a certain man, Simon a Cyrenian,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as he was coming out of the country and passing by, to bear His cross.

It was the Roman custom for the condemned prisoner to carry their own cross beam (*patibulum*) of the cross to the execution site.

There were two practical reasons for this. Firstly to carry both the vertical cross beam and the horizontal support beam would simply be too heavy a burden. It's been estimated that the entire cross might weigh between 140-160 kg. That's a heavy weight to bear especially when we factor in that most prisoners were scourged or flogged prior to execution. This would leave them in a weakened state. Most would have been physically unable to carry the whole cross. We should remember that the Romans didn't want the prisoner to die before the crucifixion began. They were however expected to carry this own cross beam across their shoulders. Depending on the type of wood used may this may have weighed anywhere between 30-45 kilograms.

Secondly it was much more efficient to have the vertical stake firmly planted in the ground prior to the execution. These stakes were deliberately erected in a prominent place just outside the city walls and alongside major roads. Having the stakes ready ensured that when the condemned prisoner arrived they could be quickly and easily hoisted up and secured to the stake. The Romans loved efficiency which even extended to the dispensing of death.

In Jesus case it seems as if the beating and scourging He had received had left Him in too weakened a state to even carry the cross-beam. But there is a deeper symbolic meaning that we should not overlook here. Prisoners typically carried their own cross-beams as a reflection of their guilt. All of us are burdened by the weight of our sin. But Jesus was different. He was guiltless. He was not weighed down or burdened by any sin. Therefore it was not appropriate that He carry the weight of the cross-beam. Later of course as He hung upon the cross all of our wickedness and sin would be placed upon Him. But for now He would not bear any burden. Someone who was a guilty sinner must do so.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를 보고 강제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사형수들이 자신의 십자가 대들보(*patibulum*)를 처형 장소로 지고 가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수평 가로대와 수직 지지대 모두 운반하는 것은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전체 십자가의 무게는 140~160kg 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죄수들이 처형 전에 채찍질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매질로 인해 그들은 약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육체적으로 십자가 전체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기 전에 죄수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은 자신의 어깨에 가로빔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사용된 목재의 종류에 따라 무게는 30~45kg 정도 되었습니다.

둘째, 십자가형 전에 미리 수직 말뚝을 땅에 단단히 박아 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말뚝은 성벽 바로 바깥 쪽 주요 도로 옆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의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말뚝이 준비되어 있으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가 도착했을 때 말뚝을 빠르고 쉽게 들어 올려서 그를 매달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워낙 효율적이었고 심지어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질과 채찍질로 인해 너무 약해져서 가로대를 질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수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반영하기 위해 가로빔을 지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어떤 죄의 무게도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대들보의 무게를 지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사악함과 죄가 그분에게 얹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짐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인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합니다.

A passer-by is compelled (literally pressed into service) by the Roman soldiers to carry the cross-beam for Jesus. Please note, this man was not a willing volunteer. Mark tells us that his name was Simon and that he was from Cyrene in Northern Africa (today's Libya). Very little is known about Simon. The name Simon was a popular name for both Jews and Greeks. So he could have been either a Jew or a Gentile. It's worth noting that there was a large population of Jews living in the Roman province of Cyrenaica. What was he doing in Jerusalem? Was he a passover pilgrim, or was he visiting the city of Jerusalem on business? All we know from Mark's account is that he was "coming out from the country" in order to enter Jerusalem. The Roman soldiers had the right to compel any local Jew to help carry the cross-beam, but forcing a local Jew to do this might lead to an uproar or riot. So perhaps Simon was singled out because he was a foreigner.

Mark does add the intriguing detail that he was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Why would he add this seemingly insignificant detail for this person who only appears on this single occasion? The clear implication, and the reason for the inclusion of this information seems to be that Alexander and Rufus were known to Mark's readers (but not to Matthew and Luke's). So, Mark in effect is saying to his readers, "You know Alexander and Rufus, well this is what their father did." Before finishing let me just direct you to Paul's letter to the Romans. In chapter 16 we read the following.

Greet Rufus, chosen in the Lord, and his mother and mine. (Romans 16:13)

Is this the same Rufus? We cannot say with any certainty but its an intriguing possibility.

Let us continue.

로마 군인들은 그 곳을 지나가던 자에게 예수를 대신해서 대들보를 들고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자발적인 지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이름이 시몬이고 북아프리카 구레네(지금의 리비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널리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구레네 지방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

까요? 유월절 순례자였을까요 아니면 사업상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마가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것뿐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현지 유대인에게 대들보 운반을 강요할 권리가 있었지만, 현지 유대인에게 그렇게 강요하면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몬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덧붙입니다. 왜 이 번 한 번만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사소한 세부 사항을 더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알렉산더와 루포가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마태와 누가의 독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사실상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를 아시죠, 이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 로마서 16 장에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13)

이 루포가 같은 루포일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22 And they brought Him to the place Golgotha, which is translated, Place of a Skull.

Jesus in His greatly weakened state was brought to the place of execution. The Aramaic *gulgulta* from which we derive Golgotha means “skull.” Today you often hear the place referred to as “Calvary” we get this from the Latin word *calvāria* which means “a skull.” It may have received this name because of its geography. It was a smooth rounded hilltop devoid of vegetation that gave the appearance of a bald head, or skull. Or perhaps it had earned this name because it was the regular place for executions and had become associated with death. As to the actual historical location of this site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We know that it was located outside the city walls. The present Church of the Holy Sepulcher was built upon the place believed to be Calvary in the fourth century, but some researchers favour the site known as Gordon’s Calvary, which sits atop a hill that looks remarkably like a skull. Most scholars favour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er as the more likely site of Golgotha, but there is a sizeable minority who say that Gordon’s Calvary feels more like the real spot. More recently another location has been proposed north east of the Jewish temple site.

So, we cannot with absolute certainty identify the actual place in which our saviour was executed.

예수님은 몹시 약해진 상태로 처형장으로 가셨습니다. 골고다(Golgotha)라는 단어가 유래된 아람어 굴굴타(*gulgulta*)는 “해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곳을 “Calvary”라고 부르는데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calvāria* 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곳의 지형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대머리 즉 두개골처럼 보이는 초목이 전혀 없는 매끄럽고 둥근 언덕이었습니다. 아니면 이곳이 주된 사형 장소였고 죽음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곳의 실제 역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벽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묘 교회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er 는 4 세기에 갈보리로 추정되는 장소에 세워졌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현저하게 두개골처럼 보이고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고든의 갈보리 Gordon’s Calvary 라고 알려진 장소를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묘 교회가 골고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호하지만, 고든의 갈보리가 실제 장소와 더 비슷하다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대인 성전 부지 북동쪽의 또 다른 위치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세주가 처형된 실제 장소를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23 Then they gave Him wine mingled with myrrh to drink, but He did not take it.

Dying through crucifixion is a tortuous and agonising way to die. It's far from being quick, and definitely not painless. Therefore as an act of mercy prisoners were sometimes offered wine laced with myrrh to dull the pain. It acted as a very mild anaesthetic. Who we might ask are the “they” mentioned here. There are two possible theories. The “they” may refer to the Roman soldiers who were carrying out the execution. Why we might wonder would they help their prisoners, and try to ease their suffering. It might be that the drink was given to make the prisoners easier to handle and manoeuvre. The soldiers didn't want their prisoners struggling or wriggling around too much which they were less likely to do if they were in effect “drugged.” The other theory is that there were some Jewish women present who provided this act of merciful service. There is an old Jewish tradition that says that this was the case.

Irrespective of who offered this wine Jesus refused to take it. He chose to face the agony of the cross with a clear mind and without medication. He wanted to be in full possession of His faculties as He did the Father's will and accomplished the work of redemption.

23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처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죽기 까지 오래 걸리는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간혹 자비의 행위로 죄수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약한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들”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 가능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죄수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는 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죄수들을 다루기 쉽고 조종하기 쉽도록 음료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너무 많이 몸부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두번 째 이론은 이러한 자비로운 봉사 행위를 제공한 일부 유대인 여성들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오래된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누가 이 포도주를 제안했든 지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는 약의 도움 없이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직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구속 역사를 이루실 때 자신의 온전한 지적 능력을 가진 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4 And when they crucified Him, they divided His garments, casting lots for them to determine what every man should take.

Men were ordinarily crucified naked. It was intended to add a further layer of insult and shame to the punishment. However the Jews were particularly sensitive when it came to the issue of public nudity. Even when men were stoned to death for example they were permitted to wear a loin cloth. So it seems here that Jesus had been permitted to wear some garments which were removed at the execution site probably leaving only a loin cloth.

By tradition the clothes or other personal effects of a condemned prisoner became the property of the execution team. Today, we might rock, scissor paper to determine who got the first pick. In the ancient world they gambled perhaps with primitive dice, knuckle bones or stones. We know that the soldiers gambling for His garments was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In Psalm 22 we read the following.

**They divide My garments among them,
And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Psalm 22:18)**

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졌다.

죄수들은 보통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형벌에 모욕과 수치심을 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공개적인 알몸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허리에 두르는 수건을 입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께서 처형장에서 입고 있던 옷이 벗겨졌지만 아마도 허리에 두른 천은 남았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형수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사형 집행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가 처음 선택할 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아마도 원시적인 주사위, 관절뼈 또는 돌을 가지고 도박을 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분의 옷을 놓고 도박을 하는 군인들이 예언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 편에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겹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18)

25 Now it was the third hour, and they crucified Him.

Mark very deliberately frames Jesus crucifixion using time stamps. He employs the Jewish system of reckoning the day as beginning at daybreak or approximately 6am. The crucifixion begins at the third hour; 9am, darkness descends on the sixth hour; 12 noon and Jesus dies on the ninth hour; 3pm.

Now if you've read John's gospel you might interject at this point with a question. Mark's timing differs with John's account. John records the trial before Pilate concluding at the sixth hour (12 noon). So in John's account Jesus could not have been on the cross until some time after 12 whereas in Mark's account Jesus has been on the cross for 3 hours! How are we to reconcile this difference? Some think John and Mark measured time differently. Some think the difference is due to copyist error. Others still think it is a *gloss* (a well-intentioned addition by an early copyist). This is a complex and detailed subject so let me try to simplify things.

The first obvious thing to note is that in a world without clocks timings lacked the precision we enjoy today. So both Mark and John are using approximate timings. Also remember that the term the “third hour” covers a period of 60 minutes.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an event happening in the first two minutes of the period and it happening in the final two minutes of the hour. We must also consider the effect the gospel writer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are seeking. John wants us to draw a connection between Jesus's death and the slaughter of the Passover lambs that took place on Friday at noon. So it's possible that Mark is adjusting his time downwards and John is adjusting his time upwards in order to better emphasise the symbolism between Jesus and the Passover lambs.

Perhaps this very brief explanation does not satisfy you. If that is the case you would do well to remember the following. The gospel writers place much more emphasis of what Jesus did rather when he did it.

Mark then goes on to simply tell us that they crucified Jesus.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none of the gospel writers gives us a description of crucifixion. None of them tell us what actually took place. None of them expend a single word detailing the horror our Lord endured. For their original readers such a description was unnecessary. Many of them would have witnessed crucifixions. However we are far removed from this barbaric practice so allow me to tell you all about crucifixion.

The Romans did not invent crucifixion, however they perfected it as a form of torture and capital punishment that was intentionally designed to produce a slow death with maximum pain and suffering. Even the Roman's themselves recognised the brutality of it. The Roman statesman Cicero said,

“It is a crime to bind a Roman citizen; to scourge him is an act of wickedness; to execute him is almost murder: What shall I say of crucifying him? An act so abominable it is impossible to find any word adequately to express.”

Let me tell you what they did to our Lord and saviour.

Once Jesus reached the execution site He would have been physically attached to the cross-beam. The cross-beam would be placed on the ground and Jesus would have been laid down across it. Stretching out His arms a Roman soldier would then drive nails through both wrists deep into the wood. This act would have severed the large median nerve going to the hand. This would have resulted in excruciating bolts of fiery pain shooting up both arms.

The cross beam with Jesus now attached would then have been hoisted up using forked sticks and affixed to the vertical stake.

Following this Jesus' feet would have also been secured to the cross. The left foot was pressed backward against the right foot, and with both feet extended, toes pointing down, a nail would have been driven through the arch of each, leaving the knees moderately flexed. The victim is now crucified.

Beyond the excruciating pain, the posture of crucifixion made it painful to simply breathe. The weight of the body pulling down on the arms and shoulders made it feel like you could breathe in but not out. The lack of oxygen led to severe muscle cramps, which made it even harder to breathe. In order to get a good breath, one had to push against the feet and flex the elbows, pulling from the shoulders. This of course puts all the weight of the body on the nail-pierced feet produced searing pain, and flexing the elbows twisted the hands hanging on the nails. Lifting the body for a breath also scraped the open wounds on the back against the rough wooden post. Each effort to get a proper breath was agonizing and exhausting.

Death from crucifixion could come many different ways:

25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는 오전 9 시(삼 시)경이었다.

마크는 시간을 사용하여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의 십자가형을 프레임화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새벽, 대략 오전 6 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는 유대식 체계를 사용합니다. 십자가 형은 제 삼 시 즉 오전 9 시에 시작되었고, 제 육 시 즉 낮 12 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예수께서는 제 구 시 곧 오후 3 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당신이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가의 시점은 요한의 설명과 다릅니다. 요한은 빌라도의 재판이 제 육 시(낮 12 시)에 끝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12 시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었던 반면, 마가의 기록에서는 예수께서 이미 3 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떤 이들은 요한과 마가가 시간을 다르게 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 차이가 필사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gloss*(초기 필사자가 선의로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상세한 주제이므로 단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시계가 없는 세상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정밀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와 요한은 모두 대략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삼 시”라는 용어는 60 분 동안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해당 기간의 처음 2 분에 발생하는 사건과 마지막 2 분에 발생하는 사건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복음서 저자들이 추구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금요일 정오에 일어난 유월절 어린양의 도살을 연관시키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와 유월절 양 사이의 상징성을 더 잘 강조하기 위해 마가는 자신의 시간을 하향 조정하고 요한은 자신의 시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간단한 설명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께서 언제 하셨는 지 보다 무엇을 하셨는 지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마가는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복음서 작가 중 어느 누구도 십자가형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공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독자들에게는 그러한 설명이 불필요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만적인 관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고문과 사형의 한 형태로 십자가형을 완성했습니다. 로마인들조차 그 잔혹성을 인정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Cicer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다. 그를 채찍질하는 것은 사악한 행위이다. 그를 처형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건 너무 가증스러워서 적절하게 표현할 어떤 단어도 찾을 수 없는 행위이다.”

그들이 우리 구세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처형 장소에 도착하고 그의 몸은 가로빔에 못 박히게 됩니다. 가로빔은 땅에 놓여있고 예수님은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 로마 군인은 팔을 쪽 뻗어 양쪽 손목에 못을 박아 나무 속 깊이 박습니다. 이 행위는 손으로 가는 큰 정중신경을 절단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쪽 팔에 극심한 불같은 고통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못박혀 있는 가로대는 갈래진 막대기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져 수직 기둥에 부착됩니다.

뒤 이어 예수님의 발도 십자가에 고정됩니다.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놓고, 두 발을 펼쳐 발가락은 아래를 향하게 한 채 못이 발목을 관통하고 무릎은 적당히 구부러져 있을 것입니다. 이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넘어, 십자가에 못박힌 자세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의 무게 때문에 숨을 들이쉴 수는 있지만 내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경련이 심해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발로 밀어올리고 어깨를 끌어 당겨 팔꿈치를 구부려서 몸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물론 못박힌 발에 온몸의 무게가 실리면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팔꿈치를 굽히면 못에 걸린 손이 비틀어졌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어올리면 등의 열린 상처도 거친 나무 기둥에 긁혔습니다.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고통스럽고 지쳤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인한 죽음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1	Acute shock from blood loss. 혈액 손실로 인한 급성 쇼크.
2	Suffocation from being too exhausted to breathe. 너무 지쳐서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
3	Dehydration. 탈수
4	Heart attack, induced by stress.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5	Heart rupture from congestive heart failure.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 파열

It's a truly horrific way to die. Today when people commit heinous acts we sometimes wish they could be put to death. We might like to see mass murders or child rapists face the death penalty. But even the worst offenders don't deserve this kind of death. So how much worse is it that the Lord Jesus Christ. The only man who ever lived a life of sinless perfection should have to endure such a death. And don't forget that He did it for us. He took the punishment that we deserved. Let us carry on.

정말 끔찍한 죽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를 때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사형을 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아동 강간범이 사형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범죄자라도 십자가의 죽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형벌을 감당해야 했던 사실은 얼마나 더 악한 것입니까?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분이 그러한 죽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6 And the inscription of His accusation was written above:

THE KING OF THE JEWS.

It was common for the condemned prisoner to have a wooden plaque known as the *titulus* specifying their offence paraded before them on the journey to the execution site. Later this plaque it would be nailed to their cross so that all could read about why they were being executed. In Jesus case the accusation against Him was recorded in three languages, Aramaic, Latin and Greek (John 19:20). No one passing by would have been left ignorant about why our saviour was hanging on a cross.

It was of course intended as an act of mockery. Here hangs the hopes of the Jewish nation. Their “king” nothing but a miserable bloodied wretch. But we know better. Here does indeed hang the king of the Jews. But He is not merely the king of the Jews. Here hang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May His name be praised forever more.

26 예수님의 죄명이 적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이라고 쓰여 있었다.

사형수들이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범죄를 명시하는 티툴루스(titulus)라고 알려진 나무 명판이 그들 앞에 행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죄패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이 처형된 이유를 모두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그분에 대한 혐의는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요한복음 19:20).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구주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 지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롱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유대 민족의 희망이 매달려 있다! 그들의 “왕”은 비참하고 피투성이인 가련한 자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달려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기를 바랍니다.

27 With Him they also crucified two robbers, one on His right and the other on His left. 28 So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ys,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The Lord Jesus was not crucified alone. He was joined by two "robbers." The word “robber” here comes from the Greek root word *lestes*, and refers to a plunderer or brigand. Interestingly it is the same word that John uses to describe Barabbas (John 18:40). This has led some to speculate that these two men were connected in some way with Barabbas. Were they part of his insurrectionist group? This theory makes sense when we remember that Barabbas was recently pardoned. So it

seems as though Mark is reminding us that Jesus is replacing Barabbas, and that He is taking his rightful place between his two co-insurrectionists. It's also notable that two men described as "robbers" are being crucified. Normally the punishment for theft was repaying the victim many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item. Crucifixion was only used if the theft occurred in a religious or royal building, or if the thief killed someone in the execution of the crime. So these men were clearly guilty of more than just theft.

Verse 28 is a controversial verse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 many of the oldest bible manuscripts. Some scholars suggest that this verse was originally added as a footnote by a scribe and was then accidentally copied into later manuscripts becoming part of the actual text. This is why some bible versions such as the NIV omit it completely. Others note that it's inclusion is dubious. It's slightly unusual because Mark rarely notes that Old Testament prophecies are being fulfilled. In truth whether Mark actually included this verse or not is something textual critics can argue over. What is stated here is a matter of fact. The Lord Jesus did fulfil numerous OT prophecies and it's good that we are reminded of this reality. Here, we see a reference to Isaiah chapter 53 verse 12 which reads as follows,

**Therefore I will give him a portion among the great,
and he will divide the spoils with the strong,
because he poured out his life un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For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de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27 그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28.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주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의 "강도"가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강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원인 레스테스(lestes)에서 유래되었으며 약탈자를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요한이 바라바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요한복음 18:40).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이 두 강도가 어떤 식으로든 바라바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의 반란 그룹의 일부였을까요? 이 이론은 바라바가 최근에 사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께서 바라바를 대신한 것이며, 그분이 그의 두 반란자 사이에서 바라바가 있어야 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강도"로 묘사된 두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에게 훔친 물건 가치의 몇 배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절도가 종교 건물이나 왕실 건물에서 발생했거나, 도둑이 범죄를 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인 경우에만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절도 이상의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28 절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중 다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이 원래 서기관에 의해 각주로 추가된 후 나중에 사본에 실수로 필사되어 실제 본문의 일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NIV와 같은 일부 성경 버전이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마가는 구약 예언의 성취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약간 특이한 일입니다. 마가가 실제로 이 구절을 포함했는지 아닌지는 본문 비평가들이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수많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 장 12 절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중 하나로 계수함을 입었나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29 And those who passed by blasphemed Him, wagging their heads and saying, “Aha! *You* wh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three days, 30 save Yourself, and come down from the cross!”

As I mentioned before crucifixions commonly took place alongside main roads and in prominent places. This of course was intentional. The Romans wanted people to see, and be deterred from causing trouble or opposing their rule. Therefore many people were walking past the cross and looking up at the Lord Jesus as He suffered. We might imagine that they would extend Him some sympathy or compassion. But sadly no, He was to receive only further blasphemy, mockery and abuse.

It's interesting to think about how we might respond if such a system operated today. How might we react if convicted criminals were displayed or tortured in public places? Perhaps we might be tempted to mock or taunt them. We might say, well, you committed the crime, you brought this upon yourself, you deserve this. Of course this could not be said about the Lord Jesus. He had led a perfectly sinless life. He did not deserve to be in such a position. We see this reflected in the words the passers-by say to Him. No one shouts, “You thief, you murderer, you swindler, you fake, you phoney.” Instead, they pick up upon Jesus' own predictions about the temple. They naturally distort His claims.

He had not said that He would destroy the temple but rather that if it were destroyed then He would rebuild it again in three days (John 2:19). Their challenge goes further still. In effect, they are saying, well if you really have the power and authority you claim use it and come down from the cross.

What they are saying is blasphemy because in their words they are showing contempt and a lack of proper reverence towards God. They are calling into question what God can and cannot do. They are questioning Jesus rightful authority and openly challenging His power. Jesus could have come down from the cross if that had been God's will. He could have rebuilt the temple in three days if He had wished. He hung upon the cross because that was part of God's redemptive plan.

We should not miss the irony in what these people shout. The Jews and the Romans were destroying the true temple (Jesus' body) but as we know He did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build it again in three days” at His resurrection. So our Lord did come down and save Himself but not in a way any of these passers-by could imagine.

Sadly this verbal abuse was not limited to the common people. The Jewish leaders also got involved.

29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야! 성전을 헐고 3 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30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으로 주요 도로 옆과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행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을 단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주 예수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분께 동정심이나 연민을 보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렇

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더 많은 신성모독과 조롱과 모욕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공공장소에 전시되거나 고문을 당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거나 조롱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범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그런 벌을 받는게 당연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곳에 있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들이 그분께 하는 말에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도둑놈아, 살인자야, 사기꾼아, 가짜야, 거짓말장이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전에 관해 예수께서 하신 예언을 들먹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만일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2:19). 그들의 도전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장하는 능력과 권위가 정말로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을 멀리하고 합당한 경외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당한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3일 만에 성전을 재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외침에 담긴 아이러니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참된 성전(예수님의 몸)을 파괴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려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언어적 학대는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31 Likewise the chief priests also, mocking among themselves with the scribes, said, “He saved others; Himself He cannot save. 32 Let the Christ, the King of Israel, descend now from the cross, that we may see and believe.”

Even those who were crucified with Him reviled Him.

The Greek scholar A.T. Robertson says that the mocking outlined here describes “Acting like silly children who love to mock one another.”

Isn't that a shocking thing to imagine. That as our Lord and saviour suffered in agony bearing the sins of mankind upon His shoulders that he was taunted and mocked by the religious leaders of God's chosen people. These were religious men, men who should have known better. Look at what they say. They admit that He was able to save others. No doubt they are referring here to the multitudes in towns and villages across the land who had been healed and fed through Christ's power. This was an indisputable fact and one they could not deny, the evidence was too great. And yet despite knowing this they continued to plot against Him and are now revelling in His suffering. Here He is, a figure ripe for mockery and ridicule, unable to save Himself. How wrong they were. We should not forget that if Christ had saved Himself He could not have saved others. He sacrificed Himself for us.

They then go on to say that if He were to come down off the cross they would believe that He truly was the Christ and the King of Israel. How empty and hollow we know their words to be. We know this because during His three years of ministry they had examined the evidence of the signs and

miracles. These they had discounted and in fact ascribed them to Satan. In three days time He will rise from the dead and then spend 40 days encouraging His followers. This too they would dismiss and instead begin their persecution of Christ's followers. So to put it simply these men would never be convinced. Their hearts were hard and turned against the truth. They would never believe.

Our account today concludes with Mark telling us that even the two robbers being crucified alongside Him mocked him. Even these two miserable wretches sharing in His agonising fate turned against Him. But I don't want to end the story there.

Mark and Matthew cut short the story of the two robbers. Luke fills in the missing details. He tells us that although the two thieves started out mocking Jesus, one has a change of heart (Luke 23:39–43). He rebukes his associate, pointing out that while they deserve their fate, Jesus is innocent. Then, in a stunning act of faith, he says,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Luke 23:42). Jesus responds with,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uke 23:43). The man's faith in Christ earns him the reward of eternal life.

What a wonderful way to end. The crucifixion was horrific. We must never lose sight of that. It was a brutal and agonising way for a person to die. But when we peer through the blood, the pain, the agony and tears something beautiful emerges. That beautiful something is our salvation. Christ died that we may live.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e death of the Lord Jesus.

31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32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그리스 학자 A.T. 로버트슨은 여기에 기록된 조롱이 "서로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상상만 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보통 사람들 보다는 더 나았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치유되고 음식을 먹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었고, 증거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음모를 꾸몄고 지금은 그분의 고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자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 마땅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 얼마나 틀렸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때 스스로를 구원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만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이고 이스라엘의 왕임을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역 3년 동안 표적과 기적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무시했고 그것들을 사탄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3일 후에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며, 그 후 40일 동안 그분의 추종자들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도 무시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박했고 진리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그분을 조롱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분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동참한 이 비참한 두 사람조차도 그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두 강도의 이야기를 짧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락된 세부정보를 더 합니다. 그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한 사람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누가복음 23:39-43). 그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결백하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누가복음 23:42)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에게 영생의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멋진 엔딩입니까! 십자가형은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기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피와 고통, 괴로움, 눈물을 통해 들여다 보면 아름다운 것이 드러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죽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Taking up our own cross

We read today about how Simon was compelled to carry Christ's cross. He didn't volunteer to do so, and it certainly wasn't a request made to him. He did it literally at the tip of a Roman sword.

In Matthew's gospel Jesus told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Unlike Simon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are forced into doing. It's something that we decide to do because we love the Lord Jesus Christ and want to be loyal and obedient followers. We take up our cross and follow Christ. I'm sure you have heard, or even used this expression to describe your Christian walk. It's part of the language of “Christianize” that we all sometimes use unthinkingly. Allow me to take a moment to explain what Jesus did not mean before I tell you what He really did mean.

Many people interpret the “cross” used here as some burden they must carry in their lives. This might be a difficult relationship, a thankless job or a physical illness. It's not easy such a person might say, I have a job where I'm not valued or appreciated, but that's the cross I have to carry. That's not what Jesus meant.

When a person carried a cross in Jesus day what did it mean? As we saw in today's passage it meant that they were going to be crucified. Obviously in Jesus case Simon carried the cross on behalf of Jesus but this was a unique exception. To carry a cross was to face head on one of the most painful and humiliating means of death human beings could devise.

Two thousand years later, Christians rightly view the cross as a cherished symbol of atonement, forgiveness, grace, and love. But in Jesus' day the cross represented a barbaric and painful death. . Therefore, Jesus' command to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is a call to self-abasement and self-sacrifice. Dying to self is an absolute surrender to God. To take up our cross and to follow Christ means being willing to give up our own plans and desires if necessary. Ultimately it means being willing to die in order to follow Jesus. Are you truly ready and willing to take up your cross

and to follow Christ?

오늘 우리는 시몬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도로 강요받았는지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하지 않았고, 요청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로마 군인이 두려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시몬과는 달리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도록 강요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이 표현을 들었거나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무심코 사용하는 “기독교화 Christianize”라는 언어의 일부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사용된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서 짊어져야 할 어떤 짐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고, 힘든 직업일 수도 있고, 신체적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인정도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경우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으나 이것은 예외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 년이 지난 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속죄, 용서, 은혜, 사랑의 소중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는 야만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자기 비하와 자기희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 Be prepared for mockery and ridicule

When I was at school we regularly had school assemblies. On at least two mornings during the week all of the students would file into the hall and be given a talk or lecture. At the time we all groaned and found them to be interminably boring. On odd occasions a member of the local clergy would make a visit. He would give us a moral lesson, or recite a story from the bible. We would listen politely and attentively because back then church leaders held a place of honour and respect in the community.

This extended beyond other Christians and encompassed the community as a whole. People listened to, and took their lead and guidance from what they heard.

Sadly in the intervening years things have changed. Today few look to the church for leadership and guidance. Church leaders and even regular Christians are frequently mocked and ridiculed. They are frequently seen as being old fashioned and out of touch with reality.

You too may have experienced mockery and ridicule for your faith. You may have been criticised or laughed at for having views that are regarded as archaic today. For example try explaining to the average person in a western country why people ought to get married before they have sex, that people should not live together without being married, that gay marriage is wrong or that abortion is murder. You will be looked at as if you are a dangerous nutcase. Most people will find your views highly offensive and you can expect to find yourself ostracised.

There is of course nothing shocking or controversial about these views. They are in line with God's revelation. They are what God who designed us and knows us best prescribed for happy and fulfilling lives. So don't fear or shy away from mockery and ridicule. When you stand upon God's Word you must expect it. It's not something we look forward to or enjoy but if, or when it comes we can look back to the life our Saviour. He endured it, and we should be joyful to follow in His footsteps.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정기적으로 학교 조회를 가졌습니다. 주 중에 적어도 이를 정도 아침에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모두는 불평했고 극도로 지루해했습니다. 가끔 지역 성직자가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거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명예와 존경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중하고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독교인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포함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력과 인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주 조롱과 놀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종종 구식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신도 당신의 믿음 때문에 조롱과 놀림을 경험했을 지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날 구식으로 간주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거나 비웃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국가의 보통 사람에게 왜 성관계를 갖기 전에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동성 결혼은 잘못된 것,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을 설명해보세요. 당신을 위협한 미치광이처럼 여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견해가 매우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당신은 배척당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충격적이지도 않고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처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롱과 놀림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당신은 조롱과 놀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대하거나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구세주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